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 입후보자 129번 한정미입니다.

저는 회원의 뜻에 따라 2016년 3월에 이사로 선출되어 2020년까지 4년 동안 협회 일을 하면서 사심 없이 오직 회원과 협회만을 위한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을 회원 여러분 앞에 감히 자신합니다.

이사회 참석하기 전에 모든 안건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여, 어떠한 방법과 결정이 회원들께 도움이 되고 협회발전을 위한 것인지를 고민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 안건에 대하여 특정 임원이 부탁을 하여도 회원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소신껏 일해왔습니다.

KLPGA 전체 회원들께는 물론 저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사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자부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KLPGA 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열정과 정직을 무기로 협회의 살림을 꼼꼼히 살피며 협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노고로 지금까지 눈부시게 발전해온 협회는 외향적으로는 덩치가 커졌으나, 전반적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은 물론 대의원이 협회에 요청하여도 협회는 묵묵부답으로 회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이고 즉 우리 자신입니다.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협회가 오히려 회원의 자유게시판을 없애고 협회와 집행부에 이의 제기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시키는 등 협회는 사유화되고 회원의 권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정관은 회원이 집행부(수석부회장, 부회장, 전무)를 뽑게 하여 권력 집중의 견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견제 역할을 했던 정관을 2019년에 개정하여 회장이 집행부를 지명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었고 집행부와 이사는 회장에게 지명을 받으려고 회원이 아닌 회장에게 잘 보이려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회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협회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의지로 협회와 회원을 위한 올바르게 진정한 일꾼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회원과 협회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회원과 소통하며 정직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 2. 28

성 명 : 한 정 미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